

## 지역 콘텐츠를 세계적 지식재산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 3. 26. ‘2026년 광역시도 및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담회’ 개최
- 콘텐츠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 등 현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과 함께 3월 26일(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광역시도 및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담회’를 열고 16개 시도 관계자 100여 명과 지역 콘텐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 심화 속에서 콘텐츠 산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27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산업이 단순히 문화 분야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 지역 진흥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 밀착형 지원을 통한 지역 간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에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한 충남콘텐츠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완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의 콘텐츠 사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산업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세계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과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은 “콘텐츠산업은 지역 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콘텐츠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역에서 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 지식 재산(IP)이 될 수 있도록 창작부터 사업화, 세계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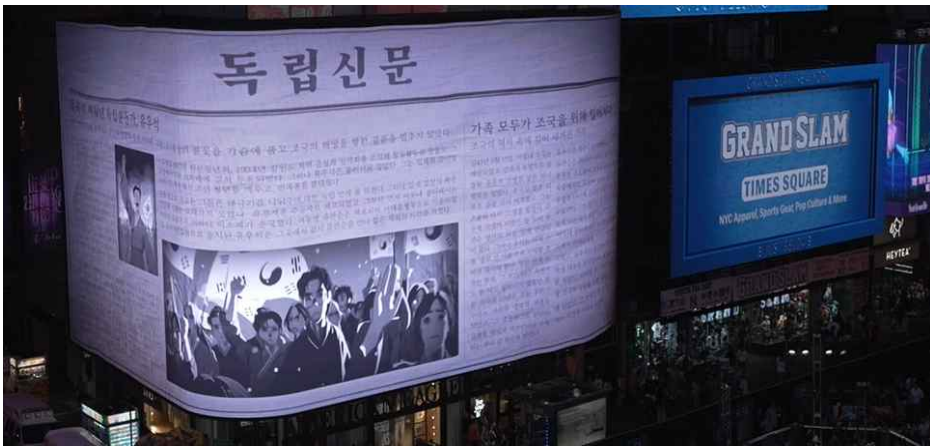
붙임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우수사례

담당 부서	문화산업정책관 문화산업기반과	책임자	과장	신용식 (044-203-3031)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044-203-2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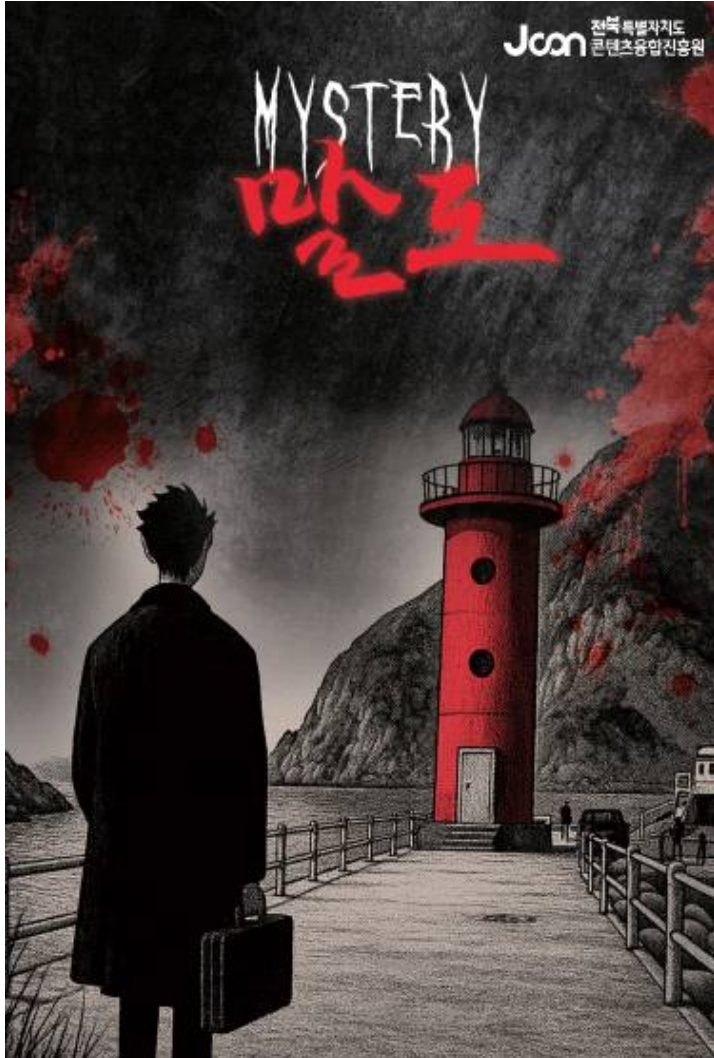
□ ‘광복 80주년’ 뉴욕 한복판에 등장한 유관순 남매

○(충남콘텐츠진흥원) 유관순, 유우석 미공개 사진 인공지능(AI)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 □ 섬 전체가 거대한 방탈출 게임판이 된다

-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 유희지역인 무인도 ‘말도’를 방탈출 게임지로 조성하여 놀이와 문화체험 콘텐츠화



## □ 웹드라마 <풋내기들>

○(대전 콘텐츠코리아랩) 지역대학·지역소상공인·지역창작자(웹툰·OST)와 지역방송국(대전 KBS) 연계 웹드라마 제작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사업목표 | 혁신과 융합이 만드는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 메카
- 사업내용 | 콘텐츠 제작 지원, 인프라 및 기술 지원, 인력양성, 성과확산, 거버넌스

→ 웹드라마 <풋내기들> 대전 지역 로케이션협조

대전 소상공인 협조 | 대전 대학 협조 | 대전 내 기관 협조

**풋내기들**  
서로서만 빛났던, 그 시절

**[마케팅] 상영회 및 OST 공연 in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 대전KBS 방영 전 선공개 ★  
네이버 웹툰 '풋내기들'  
웹드라마 상영회 & OST 라이브

25.11.10 (월) 14:00 - 17:30  
오대면 3F 스카이극장

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 | 대전콘텐츠코리아랩

**풋내기들**  
서로서만 빛났던, 그 시절

**풋내기들**  
서로서만 빛났던, 그 시절

## □ 버스창문이 스크린이 된다?

○(완주문화재단) 달리는 순간, 콘텐츠가 시작되는 확장현실(XR) 하이로드 스마트 버스

☺ 체험이나 여행과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

완주에서 새로운 시도라 인상깊었던 체험이었다

☺ 축제 시 이동 차량으로 이용하면 장점이 돋보일 것 같다

